



부평생태습지~광릉 3km

제7코스 1구간

2번 (장현리 방면 마을버스 타고 봉선사 종점)
21번 (광릉내종점)
서울방향에서 오는법 :
오남역(4호선)하차 23번 타고 광천마을 광릉시장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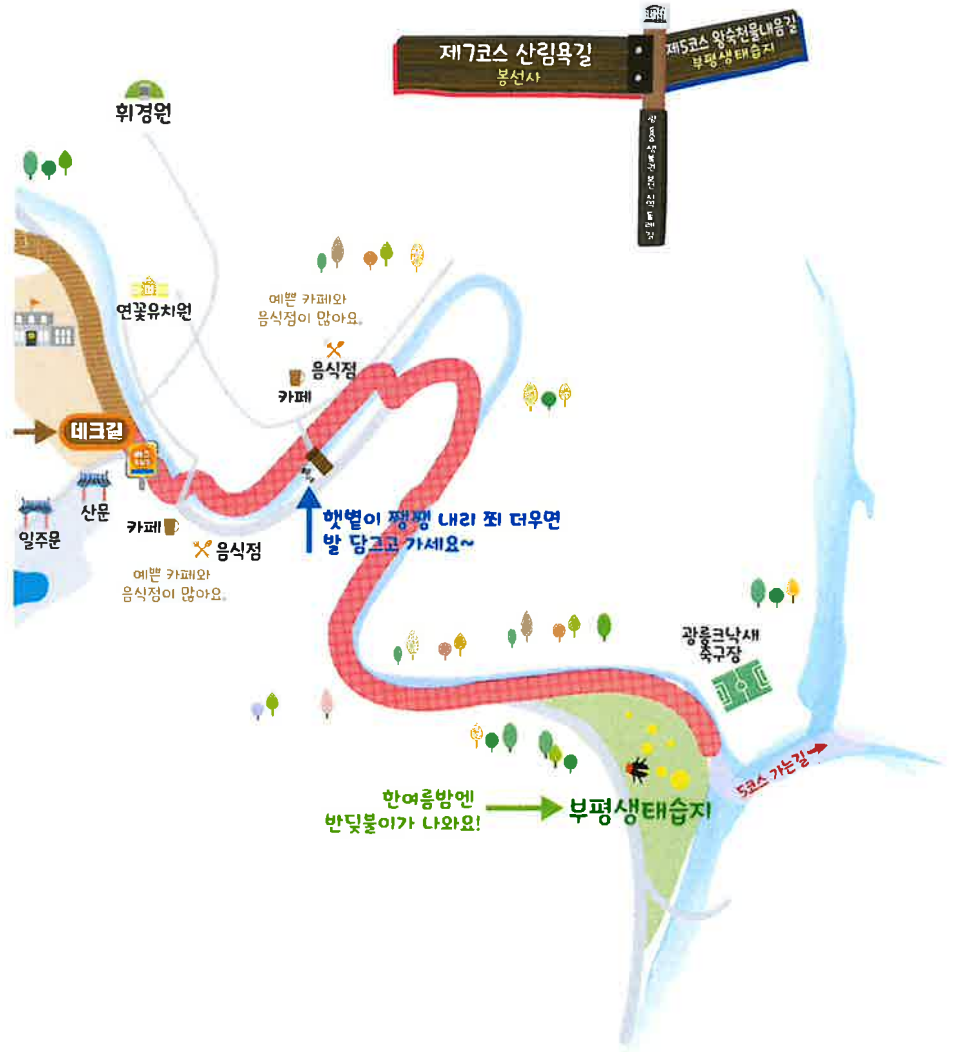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866

난이도 ★☆☆☆☆ 하 : 쉬워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지도 중요 팁

- ▶ 봉선사, 경희대사회교육원 입구 부터 테크길이 있어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 테크길은 한줄로...
- ▶ 혼자 걸어도 좋은 길! 남녀노소 누구든 걸기 좋은 길!
- ▶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더 운치 있는 길이에요!(사계절 추천)
- ▶ 화장실이 없으니 봉선사 입구 화장실에 꼭 들렀다 가세요!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있어요!



제7코스 산림욕길 봉선사

한여름밤엔 반딧불이가 나와요! → 부평생태습지



부평리 생태습지

봉선사

광릉

능내교



봉선사(奉先寺)

봉선사는 고려시대부터 있던 절로 본디 이름은 운악사였다. 세조가 세상을 뜨고 광릉으로 뗏 자리가 정해지자,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는 이곳 운악사를 원찰로 지정하여 재건축 후에 이름도 봉선사로 고쳐 부르게 했다. 봉선(奉先)이라는 말 자체가 선조를 받든다는 뜻 이닌가, 잘 리 말하면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절로 자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봉선사 입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실아온 햇수를 가늠 할 순 없지만 너무 관세음보살을 절로 옮겨 하는 묘한 기운을 간직한 나무인데 원찰로 지정한 후 정희왕후가 손 수 심은 것이라 한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연꽃이 피는 듯이 꽤 너르 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스님들의 추모비, 행적비의 부도가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다. 그 줄 끄트머리쯤에 그동안 봉선사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교의 맥을 어떻게 이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새겨놓은 봉선사 종창비가 있다.

승과평터 표지석을 보면 조선 중기때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전국 고승들의 과거시형인 승과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꼼꼼하게 걸어봐요

7-2코스
4코스 2구간과 만나는길



광릉-이곡초등학교 4.7km

제7코스
2구간



21번 (광릉내중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866

난이도 ★★★★★ 하 : 쉬워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지도 중요 팁 TIP

- ▶ 데크길은 한줄로!!
- ▶ 능내교에서는 뺑 조심!
- ▶ 긴 구간 화장실이 없으니 국립수목원이나 상점을 이용하세요!
- ▶ 커피가 맛있는 카페가 많아요!





광릉숲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소리봉 죽엽산 축석령 일대를 사냥하러 자주 찾았다. 이 말은 곧 여기가 단순히 사냥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군사 훈련장소의 기능을 가지고 궁궐 수비대의 실전대비 훈련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왕이 된 후 그는 근처에 자신이 묻힐 자리를 정하고, 이후 이곳 주변 산림도 보호하라고 엄격히 이른다. 얼마나 엄격하게 숲을 관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기록돼 있다.

광릉을 지키는 능지기, 즉 능창병은 비록 말단 9급 관리에 불과하지만, 우두머리인 영(領)이 되어 관할 부근 동리 곳곳에 그 밀으로 600명 가까이 산지기를 거느리며 이 일대 육백오십만 평의 숲을 관리했다한다. 도둑나무를 하러다니다 붙잡힐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 처벌 방법이 실려 있는데, 만약 일반인이 아름드리 소나무 한그루를 몰래 베다가 잡히면 곤장 50대를 때려 백리 밖으로 추방시킴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벌을 주도록 했고 일반인이 아닌 관리, 즉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벌이다 걸렸을 경우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입산 금지 되어 있는 산을 들어갔다 걸리면 3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산림기본법이 있다.

광릉은 철종 때까지 조선의 역대 임금이 줄곧 참배해 왔고 그에 따라서 부속림인 광릉숲을 더욱 신성하게 여겨 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출입과 간섭을 제한했다.

이후로도 숲은 한국전쟁을 견디어내면서 현재까지 500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